화순 동면초 6학년 형편 어려운 학우 위해 서울까지 '특별한 수학여행'

최근 서울로 '대중교통 수학여행'을 다녀온 화순동면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담임선생님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모두 함께 추억 하나 대중교통으로 추억 둘

첫째날
고속버스 타고 서울로
"꺅~ 놀이공원이다"

둘째날
청계천·경복궁 나들이
"교과서에서 봤는데…"

신록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5월 첫 번째 주말. 만국기 휘날리는 시골 학교 운동장에 오랜만에 활력이 넘쳤다. 마을 주민과 학부모 50여 명이 줄다리기를 하며 땅이 꺼져라 응원하고, 400m 이어달리기는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며 명승부를 이어갔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이 91명인 화순 동면초등학교에서는 지난 3일 봄 운동회가 열렸다.

"이번 수학여행은 97점이요. 숙소도 좋았고 '자이로드롭'도 짱이었거든요." 운동회 열기가 채 식지 않은 6학년 학생들에게 지난달 25일 다녀온 수학여행에 대해 묻자 "또 가고 싶다"고 웃으며 답했다.

동면초등학교 6학년 12명은 이색적인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목적지는 서울의 한 놀이공원과 경복궁으로 일반적인 장소였지만, 관광버스가 아닌 대중교통만 이용했다는 점이 특별했다.

석탄을 캐는 화순광업소 근처에 있는 학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적지 않다. 전남교육청에서 학생들 수학여행경비 일부를 지원하지만, 추가비용 때문에 함께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길 것을 우려해 교사와 학생들이 '대중교통 수학여행' 아이디어를 냈다.

첫날 화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오전 9시 버스를 타고 서울에 오후 1시께 도착했다. 첫 목적지인 놀이공원까지 가는 것부터 만만치 않았다. 난생 처음 지하철을 타는 학생들이 승차권 자동발매기와 10여 분간 씨름한 끝에 티켓을 구입하고 어렵게 놀이공원에 도착했다. 수학여행 장소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만장일치로 놀이공원을 선택했던 12명의 학생은 물 만난 물고기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높이 78m에서 2초 만에 내려오는 '자이로드롭'은 단연 최고의 인기였다.

둘째 날은 청계천과 경복궁 등 교과서에 등장하는 장소를 방문했다. 가방을 들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면서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학생들은 잊지 못한 추억을 한 아름 안고 돌아왔다.

강하늘(12)양은 "왕이 살던 경복궁 근정전을 TV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 정말 크고 아름다웠다" 며 "대중교통을 타며 많이 걸어서 힘들었지만 잊지 못할 추억이었다"라고 말했다.

김명환(12)군은 "식당에서 음식도 직접 주문하고 버스와 지하철 승차권을 저희끼리 샀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한 번 해보니 다음날에는 어렵지 않았다"며 "다리가 아팠지만 친구들과 더 친해져서 기분 좋다"라고 답했다.

학생 12명과 인솔교사 3명이 서울로 1박2일 수학여행을 다녀오면서 쓴 돈은 모두 118만9950원이었다. 교통비로 33만1800원, 숙박비 28만원, 놀이공원 입장료 16만8000원이 들었다. 나머지는 모두 식비로 일반적인 수학여행보다 훨씬 저렴하게 다녀왔다는 게 학교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수학여행에 함께 다녀온 6학년 담임교사 박용훈(43)씨는 "아이들이 시골에서 생활하면서 도시 학생들에 비해 위축된 부분이 있었는데 서울에서 다양한 것을 직접 보고 체험하며 자신감을 갖고 시야를 넓히는 기회가 됐다"며 "대중교통 수학여행이 교사에게는 힘든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을 위해 기회가 된다면 또 다녀올 생각"이라고 밝혔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상무지구 임대아파트 "재검토" "꼭 추진돼야"

지역여론 엇갈려… 市 "사실상 백지화" 경실련 "서민 주거문제 해결"

광주시가 집없는 서민을 위해 상무지구에 추진해온 임대아파트 건축 계획이 님비현상에 밀려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는 등 지역여론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

6일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광주도시공사는 최근 서구청과 남구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옛 서부경찰서 부지와 남구 주월동 개인 소유지를 소형 임대아파트 건립부지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광주시가 상무소각장 인근 1만5495㎡의 부지에 29㎡(8.7평)와 39㎡(11.7평) 규모의 임대아파트 786가구를 짓기로 했던 계획을 주민반대로 잠정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또 검토중인 서구와 남구지역은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쉽고, 재래시장 등도 인접해 있어 서민생활에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옛 서부경찰서는 부지면적이 1만1500㎡로, 29㎡와 39㎡ 크기의 임대아파트 450세대를 지을 수 있는 규모다. 또 주월동 사유지는 면적이 8260㎡ 정도로 소형 임대아파트 300여 세대가 들어설 수 있는 크기다.

광주시는 현재 이들 부지를 대상으로 단지 배치계획을 수립해보는 등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말께 최종 사업부지를 선정한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사업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15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들 두 곳 중 한 곳을 사업부지로 선정할 방침이지만 토지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두 곳 모두를 사업부지로 선정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또 사업추진이 잠정 중단된 상무지구 부지의 경우도 사업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며, 영구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필요할 경우 사업을 재추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상무소각장 인근 소규모 임대아파트 건립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광주시에 촉구했다.

광주 경실련은 "인근 주민들이 재산 피해 등의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자 임대아파트 건립을 미루고 대체 부지를 찾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광주 경실련은 특히 "광주지역은 38%가 무주택 가구로, 서민들이 임대아파트를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등 주거 불안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상무지구 임대 아파트 건립이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토지측량 지연·기반시설 미비

나주혁신도시 집 짓고도 준공 못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나주시 금천면·이하 혁신도시)의 상가, 단독택지의 준공검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전기·수도·가스 등 기반 시설이 공급되지 않고, 이에 따른 측량 지연으로 준공검사가 늦어지고 있는 탓이다.

전남도의회 이기병(무소속·나주) 의원은 6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도시 내 상가·주택 계약자 10명이 집을 다 짓고도 준공검사를 할 수 없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준공검사에 필요한 토지확정 측량이 늦어지고 있고, 수도·전기·가스 등 기반시설 미비로 건물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공기가 늦어지고 있는 남평~송현간 국지도에 지중화되는 전기 선로 공사가 빨라야 오는 8월에야 마무리되는 등 전반적인 기반 공사가 늦어지고 있어 벌어진 일이다.

이 의원은 "입주자들이 분양대금을 미납하면 연체료가 발생하면서 정작 완납 상태에서 건축 준공을 못 한 데 따른 이자 부담이나 피해 보상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은 "상하수도 등을 조속히 공급하고, 필지별 측량을 마쳐 준공검사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산업·디지털 분야 협력… 자매결연 추진 계획도"

광주서 한국-캐나다 수교 50년 '캐나다 데이'행사

데이빗 채터슨 대사 방문… 숭덕고 특강, 5·18 묘지 방문

주한 캐나다 대사관이 한국-캐나다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광주에서 6일과 7일 캐나다 데이 행사를 열고 있다.

데이빗 채터슨 주한캐나다 대사〈사진〉는 6일 오전 11시 광주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한국-캐나다 수교 50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갖고 "캐나다와 광주시 간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광주에서 올해 첫 캐나다 데이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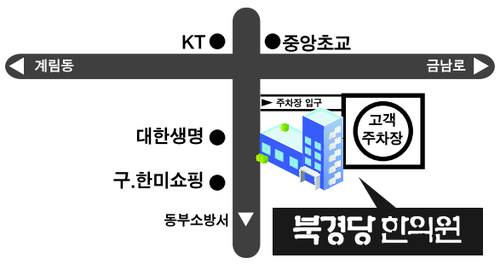
채터슨 대사는 특히 "광주와 캐나다는 광산업과 컴퓨터,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면서 "광주와 캐나다내 한 도시와의 자매결연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채터슨 대사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강운태 광주시장과 만나 광주시와 캐나다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채터슨 대사는 '캐나다 데이' 동안 숭덕고와 전남대에서 특강을 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도 방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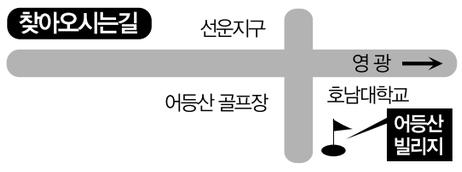
또 지역 경제인 등을 대상으로 '캐나다에서의 비즈니스 기회'를 주제로 리셉션을 열고 광주테크노 파크를 방문하는 등 양국의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7일에는 광주국제교류센터에서 호남지역에 거주하는 캐나다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영사 서비스'를 실시한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총 2만2000여명의 캐나다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광주·전남에는 1500여명이 살고 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50년 전통 대를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클리닉
체성분 분석기 도입, 체지방분해침 시술, 고주파 지방분해 시술
한의학 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공휴일은 오전진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중-2696호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90평~280평(분할 · 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 입니다.
2. 각 필지별 상 · 하수도관련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62)952-5577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용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204-중-4738호